

꽤 막힌 하늘길... LCC, 제주 노선으로 숨통 트일까

유엔 회원국 90% 빚장 걸어잡귀 5개사 국제선 전 노선 운항 중단 티웨이·에어부산 등 제주에 올인 여객 감소추세에 수익성 '안개'

국내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노선 수요 급감에 이어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인 입국금지까지 겹쳐 경영환경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대부분 국제선은 비운항하고 제주 노선에 집중하고 있어 실적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심사를 강화한 국가는 175개국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90%가 한국에 빚장을 걸어잡은 것이다.

그 결과,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국제선이 운항 중단되며 다시 항공기가 세워져 있



국적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각사

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항공업계의 구조조정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LCC 가운데 그나마 사정이 나은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 23일 기준 제주항공은 국제선에 ▲인천-도쿄 ▲인천-오사카, 국내선에서는 ▲김포-부산 ▲김포-제주 ▲부산-제주 등 도합 5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또 진에어는 ▲인천-세부 ▲인천-조호르바루 등 국제선과

함께, 국내선에 김포·청주·광주·부산 발 제주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반면, 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는 아예 국제선이 이미 '셧다운'된 상태다. 입국금지 국가가 늘고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수요가 줄자 항공기를 띄우기보다는 차라리 세워두는 게 비용절감상 더 낫다고 본 것이다. 현재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플라이강원 등 5개사는 국제선 전 노선이 멈춰섰다. 심지어 이스타항공은 이달 24일부터 김포·청주·군산-제주 노선 등 아예 국내선마저 운항단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선이 전부 비운항됨에 따라 LCC들은 대부분 제주 노선에 '올인'하는 처지가 됐다. 티웨이항공은 김포·광주·대구발 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고 에어부산은 ▲부산-김포 ▲부산-제주 ▲김포-제주 등 3개 노선에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에어서울은 김포-제주,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양양-제주 등 단 한 개 노선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익성 악화에 따라

언제 비운항 조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제주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한 달 사이 대폭 줄었다. 이는 곧 수요 감소에 따라 항공사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나왔던 지난달 23일 기준 제주공항을 이용한 국내선 여객은 5만1583명이었다. 그러나 이달 22일 기준 국내선 이용 여객은 3만5668명으로 31%가량 감소해, 제주 노선조차 수익이 제대로 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두 항공사는 LCC와 달리 중장거리 지역에 취항하고 있었음에도 국제선 운항이 대폭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존 국제선 전체 115개 중 22개만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선은 17개에서 7개만 남았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72개 중 24개만 운항하며 67% 가량이 비운항 조치된 가운데 국내선도 10개 중 7개만 남은 상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신보-우리銀, 코로나19 피해 中企 돕는다

혁신 창업 기업에 900억 보증 中企엔 3년간 보증료 등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우리은행과 혁신 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혁신성장·수출·일자리 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업력 7년 이내 혁신성장 선도 창업기업에 900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용(최대 100%)과 보증료율(0.2%포인트 차감)을 우대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0.2%포인트씩 3년간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혁신 성장 견인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정의선, 190억 들여 자사주 매입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주주 가치 제고, 책임경영 의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이 주주 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을 전격 매입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23일 정의선 부회장이 주식을 190억원 어치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 13만9000주, 현대모비스 7만2552주다. 매입 단가는 현대차 6만8435원, 현대모비스 13만789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금융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 상황에서 회사를 책임감 있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활동"이라며 "현대차·현대모비스 임원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주식 매입과 함께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경영진의 이번 활동이 미래 기업 가치 향상 및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도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이날 한국금융지주는 김 회장이 이날 오전과 오후 자사주 3만2000주와 7만6000주를 각각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20.23%에서 20.42%가 됐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2008년 10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에도 김남구 회장(당시 사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진 등 5명이 자사주 20여만주를 장내 매수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한전, 가스터빈 기동장치 국산화 개발 성공

발전 자회사와 공동 개발 유지보수 신속 대응 가능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의 기동장치를 국산화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던 가스터빈 핵심 설비 '기동장치'를 발전 자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두산중공업이 제작사로 참여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터빈 기동장치는 회전운동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이 초기 일정 속도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지금까지 GE, ABB, TMEIC 등 해외 제작사에서 독점 제작해 국내 발전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한전은 가스터빈 기동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회전체의 속도제어 알고리즘과 같은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한 후 기동장치 설계를 수행했고, 두산중공업은 한전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기동장치의 제작을 담당했다. 모의 실험 설비를 활용해 성능시험을 마친 기동장



한전 전력연구원 직원들이 가스터빈 기동장치를 제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치는 지난 1월 한국중부발전 보령복합 발전소에 설치돼 2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기동 소요시간을 만족해 이달부터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가스터빈 기동장치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 제작사보다 신속하게 발전사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응하고, 국내 발전 환경에 맞는 시스템 개선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국내 5개 발전사가 운영하는 기동장치는 26기로 노후화된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2025년까지 5기를 국산화 기술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화력 사용률이 감소하고 가스발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터빈 기동장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가스터빈 기동장치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코트라, 수출길 막힌 기업에 침병역 '톡톡'

KOTRA(코트라)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수출길이 막힌 기업들의 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코트라가 코로나19에 맞서 화상상담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성공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온라인상담 특성상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샘플거래와 기존 바이어 추가상담에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진단기기 생산기업 J사는 코로나19

가 퍼지면서 보건·의료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프리카 시장을 주목했다. KOTRA 화상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난해 두바이 의료기기전에서 만난 의료장비 전문 유통상과 4차례 영상상담을 진행했다. 발빠른 대응으로 18일 코로나19 진단기기 109대 수출계약을 마무리했다. 남아프리카개발연합 14개국 독점 공급계약도 체결해 진단 장비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